

기도·은혜·말씀을 지나 순종의 자리로

기본을 잃은 영성은 가짜다

본문 · 마태복음 8:1~4

오늘 본문에는 한 나병환자가 예수님께 치유받지만, 곧바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기적은 경험했지만 기본은 놓친 것입니다.** 성경은 치유보다 그 이후의 순종에 더 큰 관심을 둡니다. 기도·은혜·말씀의 단계를 지나 ‘순종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1 치유받았으나 순종하지 못한 사람

오늘 본문에는 한 나병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와 치유를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엎드려 간구하였고,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치유 직후 매우 중요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치유받은 사실을 널리 알렸고, 그 결과 예수님의 사역은 큰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한적한 곳에 머무셔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나병이 치유된 사건에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치유보다 그 이후의 순종 여부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병은 나았지만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기적은 경험했지만 기본은 놓쳤습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기도를 많이 하며, 성경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공동체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질서와 가이드는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공동체를 배려하지 못하면서도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명령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2 기도의 양이 아니라 삶의 열매

실제로 여러 사역 현장에서 이런 모습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 보이는데도 성도들의 열매가 좋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고, 책임감이 있으며, 어디를 가든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반면 어떤 교회는 밤새 기도하고 뜨거운 예배로 유명하지만 성도들의 삶에서는 기본적인 질서와 책임감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신앙의 수준은 기도의 양보다 삶의 열매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도 자신은 예수님을 돕고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 주셨으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의도는 선했을지 모르지만 결과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주님의 말씀과 가이드를 벗어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 시에라리온 선교지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열정적인 선교팀이 방문했지만, 물이 귀한 지역의 기본 가이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선교사들은 본래 사역보다 그들의 불편을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했고, 사역은 멈추고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는 많이 했지만 공동체를 섬기는 기본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3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신앙의 핵심은 특별한 체험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기도는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도 중요합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는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고, 말씀은 삶으로 나타나야 하며, 은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 기도 시간보다 순종의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보다 들은 말씀을 얼마나 살아냈느냐가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준 작은 가이드 하나에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더 큰 일에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결론 — 순종하는 예배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분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순종하는 사람인가?**

기도의 단계, 은혜의 단계, 말씀의 단계를 지나 반드시 순종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기본을 잃은 영성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화려한 영성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한 체험보다 순종을, 뜨거운 감정보다 열매를, 신비한 경험보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이며 진짜 영성입니다.

FOR OUR GROUP

함께 나누는
적용 질문

Q1

신앙 활동 VS 순종

나는 기도, 성경읽기, 예배 참석과 같은 신앙 활동은 열심히 하면서도 정작 순종해야 할 말씀은 미루고 있는 부분이 없는가?

Q2

소홀히 한 기본의 자리

공동체와 가정, 직장,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책임과 질서를 소홀히 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

Q3

이번 주 순종할 한 가지

최근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신 한 가지는 무엇이며, 그것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는가?

이번 주 함께 기도할 제목

